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살피게 드립니다. <출판일> 편집자 ● 불꽃: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44호
서기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정신보다 물질 치우쳐 세상 어수선

같이 한자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계에만 치우치게 되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정신계에 빠진 길로 들어가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란,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불(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행하고 배우고 물리가 터지고 하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불교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생각해보십시오. 하여튼 어느 종교든 지구 대기권, 즉 말하자면 공기주머니 안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이라는 뜻도 모르고 또는 일체 만물 만생이 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우주 삼천大千세계가 우리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신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끊임없는 사실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뼈한 무더기를 보시고 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생의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시니까?" 하니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고 거꾸꾸 돌아와서 나무면서 이렇게 왔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돌아서 나왔으니 이 뼈 무더기는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간단 말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통신이 하듯 됩니다. 하달이 되면 즉시 정수에, 지금 여러분한테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용도는 다양하죠. 우리의 삶에 의해서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가 있다니 없이 있다니 내 팔자는 왜 이러냐는 등 이러한 소리하지 마시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밀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취하셔야 앞서 나쁘게 입력됐던 것이 다 지워지고 새로이 입력이 들어오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체만물 생명이佛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체험을 하고 "아, 이런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심성의화도 될 수 있고 심성과화도 될 수 있고 심성 전체



그림 · 최주현

주인공 믿고 관찰때 대뇌로 통신대 정수에 입력된다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왔는데 오늘날에 볼 때에, 초월해서 본다면 삼만 년 전이라도 현실이고 삼만 년 후라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모나 내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초월해서 본다면 바로 수 없이 미생물에서부터 어버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온,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볼 때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들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모두가 그런고로 일체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계의 50%를 따진다면 뿌리가 있어서 나무들이 싹들이 사람도 역시 자기 종자 뿌리가 있음으로써 육신이 살고 있다는 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계로만 치닫진 정신계 50%는 빼놓는 까닭에 융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살기가 어렵고, 결리는 게 많고 일일이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나는 책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영어로 다 이렇게 말하고 끊고 말하고 끊으면 말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항상 여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편안하게 사시려면 착과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데 그걸 어떻게 놓느냐, 이게 문제겠죠.

사람들이 죄다 업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통이 아닌 뿌리, 즉 말하자면 불성, 자부처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관찰 때 바로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대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四大)로

물리화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하죠. 없는 게 마음이지. 그 마음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까닭은 여러분 몸 속에 생명이 많으시죠? 생명과 모습과 많은 의식들이 어디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내 마음이 안으로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입력될 때 거기에 다스림을 받게 되죠. 쉽게 말하자면 각자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의 교차로 증명해주시고 자기를 따라주시는 것이 영혼이지마는 에너지를 배출시키고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의 주인공, 그대로 불기등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주인공에 놓으면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믿어 가는 응신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자기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통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죠. 인간으로서 좀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서로 연결해서 산다는 사실을 어느니 만큼 우리는 먼저,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디가드가 될 수 있고 이끌어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해결사가 될 수 있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죽여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밥 먹어주고 잠을 자주고 똥을 뉘줄 수가 없겠고, 그리고 깨달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출로 와서 길을 걸으며 길에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살얼음판 같죠.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는 말을 하죠. 그건 왜 부처님께서 비유했느냐 하

면... 몸은 배로 비유를 하시고요, 또 몸 속에 들은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하시고, 또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인생 길을 노젓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그런다고 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하고 바깥으로 찾아 봤자 그거는 오히려 배가 뒤집힐 정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마음을 집중해서 안으로 놓으면 선장하고 몸이 돼서 배는 그대로 유유히 가는 데까지 다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면 낚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네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가 참 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모습은 참 자기가 이끌어 가는, 즉 말하자면 불기에서 시작하고 그러는데 종이나 마찬가지로 종이라고 보다는 자기의 육신은 자기가 형성시켰고 자기가 진화를 시켰으니 자기 몸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실도 그냥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자기가 살면서 정신과 육신이 같이 콧바가 돼서 100%로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50%만 자기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걸려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아예 생각지도 않거든요.

정신계로 회복되는 길은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잠을 자지 마라, 먹지 마라 일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전수가 차를 이끌고 다녀요. 기름이 없어도 운전수가 넣어줄 것이고 찌그러뜨려도 고칠 거고 고장이 나도 고칠 거고... 모두가 그러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리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만이 나의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큰 거든지 작은 거

든지 일거수 일투족 각양 각색으로 다쳐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맡기고 걱정이 안 되죠.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밀고 넘어가는 그 마음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자식이든 딸로 육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휘어잡을 수 있어야 만이 나가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는 자식이나 부모다 하는 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에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관하면, 즉 말하자면 일임하고 관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줘라,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모두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질이 나면은 아무 데나 막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서 분이 치밀어도 '너만이 치밀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만이 화목하게 살 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롭게 할 수 있어, 내가 형성시켰으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떠밀어서 일임하는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요즘을 참선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과 움직여지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말하기를 앉으면 좌선이고 서면 입선이고, 누우면 와선이고, 일을 하면 행선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돌아가야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오손에 근거가 돼서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유하기를, 좌선을 하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나니까 어떠한 선지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일어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되 참선이 아니라 좌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좌선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했다가 일어나면 좌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가 없으면 돌아가고 일어나면 지구가 멈추나요? 세상이 다 멈추나요?

그래서 모두가 일본 일초도 쉬지 않고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임

대고요. "하혈을 하는데 병원에 가도 멈추질 않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알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인제 멈췄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얘깁니다. 지금, 일거수 일투족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용도대로 주입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깁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시련이 좀 더, 어떤 사람은 어려 거든요. 그냥 생활이 참선입니다. 그냥 생활이 참선이에요. 자고 먹고 풍누고 그냥 일하고요. 그래서 앉아서 혹은 여유가 있을 때 한시간이고 우리 스님네들도 참선을 합니다. 좌선하는 게 아니라 참선합니다. 그런데 그런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합니다. 그렇게 관하고 모든 면에서 확실히 내 나 무는 내 뿌리를 믿어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신다면 정말 살기가 아주 용이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죠. 이게 말이 헛갈려서요. 종잡을 수가 없이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

나는 주인공의 심부름꾼이니 맡기고 부지런히 뛰어라

짜 내가 못났을 때의 내 모습 같고 내 아픔 같고, 나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초월해서 이 마음 공부하는데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계를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혼란이 되지 않고 물질계에도 영 살 수가 없는 정도죠, 고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보심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겁니다. 통역을 하니까 뒤바뀌어서, 나는 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꾸 내 뜻이 끊어 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들으시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정신계를 붙여넣기 위해서 서로 모인 겁니다. 무슨 장난이나 하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자리를 하시면서 듣는 게 어설프더라도, 양면을 다 하러니까 상당히 이상스럽게 얽히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앞으로, 지금 서울에서는 한 달이면 세 번씩, 즉 말하자면 남자들만 모이는 법회가 있고 다 같이 한테 모여서 하는 법회가 있고 또 여군들 법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내가 말을 해줬다고 생각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행상을 믿고 이들을 믿고 기도를 하고 이리저리 마시고 법당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부처님이 내 모습이고,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글게 예배를 올리고서 돌아갈 때는 다시 자기가 동글러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통역을 하는 말을 듣다보니까 내 말은 끊어져 버리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허허허. 그러니까 미국 분들 따로 한번 모이시고요, 한국말 하는 분들 따로 모이시고요, 이렇게 한번... 서로 모여서 질문을 하시고요,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허허허. 나무 뿌리가 있으면 저 줄거리로 가아할 거를 이 줄거리로 가게 되고 아주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강설이라면 적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하지만 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비틀비틀, (대중 웃음) 그러나 그렇게 들으셨어도 아마 사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생활에 요긴하고, 모두가 생활이요. 뭐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즐겁습니다.

누가 미국에서 말합니다. 전화를 들이

해서 우리가 같이 날짜를 따르므로 정해서 양쪽을 다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너너분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만 생각지 마세요. 그 뒷면에는 뜻이 있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바로 불빛이 있으니까요.

▲사회자: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시 통역을 위하여 삼백 개의 이어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오백 분을 넘는 바람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문을 하시는 스님과 청중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행 및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질의의사를 표명하신 분을 중심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평정돼야 참선

▲질문자: 스님, 이렇게 먼길을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90년 5월에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스님께서 방문을 나서시는 저의 등애대 대고 "주인공을 찾아" 라고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참 나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제 자신이 랫동안 해오던 방황과 외로움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누구도 어떤 가르침도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월급쟁이 내과 의사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막 밀려들 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생각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을 내릴까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생활 참선법을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환자의 하소연을 저의 참나가 듣고 갖게 해주며, 나는 내 몸과 내 지식을 이용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믿고 환자가 낫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참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환자를 보고 다음 환자를 보는 사이에 다만 10분의 1초라도 낫기를 관해 보면서 다시 제 자신을 새롭게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는 의사로서의 좌절감과 동시에